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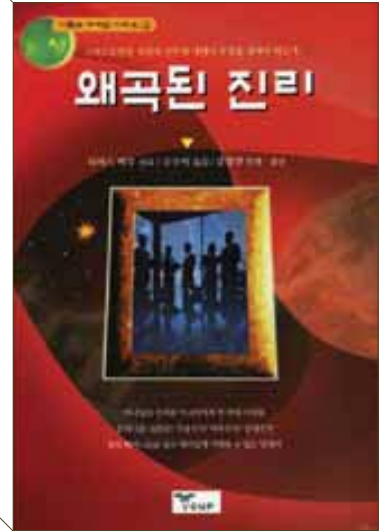
## 다시보는 책 <왜곡된 진리> 세상에서 고통을 공유하는 태도

어떤 여성이 고향을 방문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지냈고 나중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까지 한 절친 중의 절친이었다. 졸업 후 그녀는 결혼하여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 이때문에 그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난 그녀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최근 남편과 교회를 옮기고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하였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들은 신앙의 확신과 열정을 주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이 왜 기독교인인지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친구는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책도 읽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책들이나 관심은 쓸모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한 말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친구는 달라진 사고방식과 확신에 찬 태도로 다짜고짜 자신은 그녀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해도 된다면 자신은 그녀를 정말 싫어했고, 함께 하기 싫었으며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친구의 일방적인 고백과 용서에 혹시 자신이 친구에게 상처준 일이 없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당황스러웠다. 그러한 친구의 확신에 찬 태도로 그녀는 친구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자기만 확신하고 괜찮으면 되는 건가?”



**이준성** 전북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라브리 공동체에서 30대를 보냈다. 지금은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현재 강릉한마음교회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다.



리처드 마우는 『왜곡된 진리』라는 책의 초반에 진리에 확신에 찬 기독교인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본주의자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와 불의,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명쾌하게 선을 긋는 능력이 있다는 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5)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준다. 반대로 그 밖에 있는 자들과 공동체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이들은 진리를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명쾌하게 나뉠 수 있을까?

『왜곡된 진리』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 마우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왜곡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말과 같은 것일까? 이점에 있어서 마우는 의문을 제기한다. 마우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진상은 완전한 거짓이 아닌 왜곡된 진리에 속은 사건이라고 말한다.(61) 사실 왜곡된 진리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진리라는 말에는 강

한 배타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와 거짓의 반정립적(antithesis) 대립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준거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탄은 분명한 반정립적 상대이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을 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 후의 모든 인간들을 사탄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만약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단칼에 ‘타락한 인간=사탄’이라는 등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진리)으로 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 사탄이 왜곡된 진리라는 전략을 사용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어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우는 이를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난 이를 ‘근원적 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 안정을 잃은 인간은 인간에게서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희망과 두려움”이란 불안정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일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근본적인 안정에 이미 들어갔음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후서(2장 23~26절)나 다른 서신에서 거짓교사들과 타 종교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 중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논쟁처럼 우리의 모든 논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우의 말처럼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다. 복음적 호소로 영혼의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더라도 말이다.”(50) 그 이유는 그러한 관용적 행동이 반쪽 진리인 “모든 시대의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이시대의 모든 인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런 행동의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독교인들만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누가 너의 이웃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의 답에 기독교인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그저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만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현명하다 할 수 있다.

마우의 책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다룬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사상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다. 휴머니즘(인본주의), 일원론, 주술주의, 자연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 등이다. 나는 이러한 사상을 다룸에 있어 여타 세계관 책과 마우의 책의 큰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우의 책과 같이 다양한 세계관을 소개한 대표적인 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제임스 싸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쉽게 읽혀 기독교 세계관 공부의 개론서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책들의 공통적인 접근법은 기독교 세계관 외의 다른 세계관의 위험성을 열거함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진리성을 극대화하는 반정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마우는 싸이어와 달리 인류가 추구한 다양한 세계관들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희망과 두려움) 밝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들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진리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라브리에서 활동 했고 지금은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제람 바즈 교수는 수가성의 야곱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공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 한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도구였던 물그릇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대했던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물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그릇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 밥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 하셨을까? 이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 여인의 부도덕한 남자관계에 대해서 눈감아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지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한없는 연민과 공감을 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비록 죄인이지만 이들도 자신의 죄든 남의 죄이든 더 나아가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으로든 고통당하는 한 인간으로서 공감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찾은 성과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너무 확신에 차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고통과 몸부림, 특히 허무주의자들의 절규를 아는 것은 구속받은 기독교인들의 과거이며 여전히 우리의 일부로 작용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기억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며, 승리주의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대화하기를 고집한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승리주의라는 허상의 울타리를 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선의 장막 속에 스스로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예수님이 타파하고자 했던 바리세인들의 장막이었음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육체의 연약함 속에 괴로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에 한 발짝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한다. 그 무리들 가운데 나와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 까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본질적 죄인인 불신자들과 실존적 죄인인 기독교인이 함께 동일한 문제

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동전선을 펼치고 진리의 길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설득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지 전선을 나눠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으로 이분하여 우리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발 앞에 이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식이라 생각한다면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같은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유일한 방법이다. 난 마우가 소개한 방법이 속 터지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인내하심에 탁월하신 성령을 모신 자라면 인내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쉬운 길이 아닌 마치 요단강 앞에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로부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칼날 위를 걷도록한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난 하나님의 애리한 칼끝 위에서 좌우에서 빗발치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우뚝 선 어떤 기독교인을 상상해 보고 싶다. 